

프랑스 대학교육개혁 동향 및 시사점

● ● ● 김 차 진 |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장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 정부 출범 전후에 여러 가지 개혁 동향들이 발표되어왔다. 프랑스는 오래 전부터 대학제도의 불합리성을 잘 알고 있었다. 20년 전부터 3번에 걸쳐 대학제도개혁을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실패한 바 있으며, 지금도 대학의 전반적인 개혁이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수요자인 대학생에게 신뢰를 주지 못한 것이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비용 내각의 고등교육제도개혁 방향을 소상히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프랑스 정부가 시급히 개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단해 봄으로써 프랑스 고등교육의 문제점을 심도 있게 관찰해 보도록 한다.

I. 개혁의 근거

대학개혁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들 수 있는 점은 첫째, 실력 있는 학생 및 교수 유치의 필요성 때문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학업실패 비율이 점점 증가하는 현실적 문제점 때문이다. 해마다 9만 명의 학생이 학위취득을 하지 못하고 대학교육을 포기하고 있다. 특히, 대학 1학년에 등록한 학생 중 50%가 학업에 실패하고 있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또한 석사 1년차를 끝낸 학생 중 53%가 직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이들에게 직업세계로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하는 교육시스템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셋째, 대학의 행정체계상 총장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의 고등교육체제로는 대학 총장이 권위를 가지고 학교를 이끌어 나갈 수가 없으며, 외부 세계와 접촉이 부족했다. 그 이유로는 총장이 학교의 3개 위원회에 의해서 선출되다 보니 자체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대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보다는 내부분쟁 발생 시 중재자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한계점이 종종 프랑스 사회에 회자(膾炙)되어왔다.

넷째, 세계 우수 대학교와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 대학교가 세계대학교 순위에 뒤처져 있는 것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II. 개혁의 구체적 내용

1. 대학 지휘체제개혁

이런 문제점들을 인식하고 가장 먼저 개혁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대학 총장 선출방법개혁으로 대표되는 지휘체제의 개혁이다. 총장 선출권을 행정위원회로 단일화했으며, 총장 선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오던 행정위원회 정원을 60명에서 20~30명으로 대폭 감축하였다. 또한 행정위원회에 학과 신설권을 부여함으로써 대학 자체에서 변화하는 학문경향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였으며, 직원 채용 시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기술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하였다.

대의제인 행정위원회는 기존에는 대학 내부인사(교수, 연구원, 직원 및 학생으로 구성됨)로만 채워졌으나 개혁법안에는 대학 총장이 경제사회계의 외부 인사 및 졸업생 대표 7~8명을 행정위원회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으로써 외부 인사들과 협조하여 대학개혁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게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도록 한 점이 특징적이다.

총장의 권한을 합법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그 권한도 강화하였다. 총장 임기가 예전에는 단임이었으나 개정된 법률에는 4년 임기를 마치고 1회에 한해 재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예전에는 대학 내의 3개 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 총장에 선출되더라도 3개 위원회를 모두 의식할 수밖에 없었으나 총장 선출권한을 행정위원회로만 단일화함으로써 총장에게 심리적 부담을 줄여준 셈이다. 대신 총장에게는 교육과 연구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임무가 주어졌다. 대학발전을 위한 자체 프로젝트를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결과도 평가받도록 하였으며, 해마다 행정위원회에 학교 경영 결과를 브리핑하도록 했다.

2. 대학의 자율성 강화

새 법에는 대학이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과 5년 이내에 시행할 내용을 구분하여 법제화함으로써 단계적으로 개혁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1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안건으로는 교수 또는 연구원의 채용시기를 현재의 약 18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면 법인 없이도 기업(Fondation)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학-연체제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 고등학생의 진로를 도울 수 있도록 새로운 권한을 부여하여 대학생들의 중도 포기를 미리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각 대학이 자체 실정에 맞추어 5년 이내에 시행할 수 있는 안건으로는 전체적인 예산 결정안과 계약직 직원 채용, 보너스 문제 결정권한이다. 즉, 총장은 자체 권한으로 계약직을 고용할 수 있으며 직원들의 수당을 결정할 수 있다.

3. 학위의 질 개선

대학은 자체적 필요성에 의해 학사과정을 신설 및 폐강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예전에는 프랑스

교육부가 이런 모든 문제를 통괄하고 있었으므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었다. 또한 실력 있는 교수를 임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도 마련하였다.

사실 그동안 프랑스의 대학재정이 열악하여 실력 있는 교수들이 미국 등으로 빠져 나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지적해온 내용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개선 추이를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III. 대학 파트너로서 국가의 역할

지금까지 대학에 새로 부여되는 권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런 개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인데 새 개혁안에 나타난 국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국가는 교육과 연구, 직업세계의 진로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각 목적을 규정하고 대학교와 다년간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는 4년마다 대학을 평가하도록 법제화하였다. 그리고 국가는 대학의 질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프랑스 정부가 대학의 질 개선을 위해 일정 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각 지역 교육청장은 대학교에서 비합법적(특히, 납입금을 대학교 자율로 책정하는 것)으로 행하는 일을 통제하고 공개한다. 학위는 국가에서 발급할 것이며, 납입금은 고등교육 및 연구부 장관이 결정하는 법규(Arrêté)에 의해 정해질 것이다.

또한 국가는 대학에 권한을 이전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개혁교육법 24조항의 Art. L. 719-13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가는 대학교에 건물 사용의 자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대학은) 국가에 부채의 의무가 없다”라고 명시해 두었다. 이 말은 지금까지 국가가 관장하던 대학교 건물 사용권을 대학교로 그 권한을 이전함으로써 앞으로 대학은 시설 임대 등을 통해 일정 부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의미이다.

사실 프랑스 대학은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대학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주어지지 않을 정도로 중앙집권적 행정체제에 묶여 있었다. 프랑스 정부는 점진적으로 대학에 권한을 이전할 준비를 갖추고 있지만 필자의 생각으로는 세계적인 경쟁체제의 틈바구니 속에서 프랑스 정부의 조치는 때늦은 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IV. 7월 25일, 개혁안 국회 통과

지금까지 설명한 대학개혁의 내용은 법제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한 적이 있는데 “대학교 총장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다”라는 좌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7월 25일 대학교개혁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발레리 페크레스 고등교육부 및 연구부 장관은 “개혁법이 학생과 대학뿐만 아니라 국가를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라고 언급하였다.

장관이 희망하는 대학개혁의 비전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학생들이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더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대학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대학개혁안의 특징은 총장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더욱 중요하게 대두되는 개혁의 근본적인 목표는 대학교의 자립이다.

V. 외형적인 개혁보다는 유럽의 네트워크에 눈 돌릴 때

하지만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프랑스 대학의 이러한 외형적인 개혁조치보다는 유럽연합의 네트워크화, 과학 및 기술 개발 현황을 알고 국제 정세에 맞게 우리 학문도 미주 일변도에서 벗어나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유럽연합은 2002년 이후, LMD라고 불리는 고등교육개혁을 실시하여 각국의 서로 상이한 고등교육체제를 유럽 전체적으로 일관성과 투명성이 있는 고등교육체제로 정비하고 학위를 상호 승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또한, 비유럽권으로의 개방을 위하여 유럽 대학생들 간의 전통적인 교류 프로그램들인 에라스무스, 소크라테스 등의 교류프로그램 외에 2004년도부터 에라스무스 문두스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교류대상국을 유럽 외의 제3국으로 확장하는 길을 열었다.

에라스무스 문두스는 세계의 우수학생들을 유럽의 석사과정으로 이끌기 위한 기제로서 프로그램은 액션 1~4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그 조직은 주로 유럽연합 소속 대학 2~3개로 이루어진 대학 컨소시엄에 비소속 유럽국 대학이나 비유럽권 국가의 1~2개 대학이 연계되어 공동 석사를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다.

이 중 비유럽권 국가의 대학들이 참여할 수 있는 창구는 바로 액션3 프로그램으로서 현재 미국, 캐나다,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및 일본,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카리브해 및 남태평양 반도국들이 이 프로그램의 가장 큰 수혜국들이다.

유럽은 차세대 학문으로 전자, 바이오, 농업, 수자원, 기후학을 상징하고 이 영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3자 협약을 통하여 스트라스부르, 그르노블, 로잔, 튜링대학을 연계하여 나노테크놀로지 및 바이오테크놀로지 영역에서의 세계적 첨단화를 꾀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유럽의 기술교육 강화와 함께 미국, 일본에 대응한 유럽 과학기술교육의 국제적인 라벨화를 위한 노력도 추진하고 있다. 오늘날 유럽 각국은 학위조정평가기구(프랑스 CTI, 독일 ASIIN)를 두어 자국의 학위제도를 유럽차원에서 조정하거나 외국 학생들의 학위에 대한 심의 및 평가를 담당케 하고 있다. 99년 캐나다와의 협정 이후 독일, 네덜란드와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였고 유럽국가 간 학위제도 조정은 EUR-ACE 프로그램 아래 실행되고 있다.

VI. 프랑스 이공계 대학의 국제개방정책을 잘 활용해야

최근 중국 상하이의 교통(交通)대학이 수립한 세계 500대 우수 대학교 랭킹에 프랑스는 파리 6 대학, 파리 11대학, 스트라스부르 1대학 그리고 파리고등사범대학(ENS Paris)의 4개 대학이 올랐다. 세계 전자시장 및 인력시장의 중심지가 중국과 인도로 옮겨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프랑스 정부는 중국 대학의 이러한 서열화를 경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프랑스는 오늘날 중국이 이공계 연구소들을 이미 20만이 넘게 개설하는 등 역동적인 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을 주시, 자국의 이공계 대학의 재구조 및 체제 개편을 가속화하고 아시아 모델에 연계하는 작업을 필수과제로 삼고 있다.

이를 위해 프랑스는 먼저 자국의 이공기술계 대학교육의 강점을 발판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특화하는 한편, 취약점은 재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 이공기술계 교육의 장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전통적으로 프랑스가 경쟁력을 자랑하는 부문은 자동차, 텔레콤, 에너지, 방위 전자산업, 무기, 항공우주 산업, 생명공학 영역이다. 수학 영역에서도 세계 상위 8%를 석권하고 있을 정도로 우수성을 자랑한다.
- 시간당 생산성이 높다(시간당 생산성을 100을 기준으로 하여 비교할 때, 벨기에와 프랑스 120, 미국과 네덜란드 118, 이탈리아와 독일 105, 스페인과 일본 80).
- 질적 관리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 산학연계 교육모델이 정착되어 있다.
- 지역의 교육 인프라가 균형적이며 견고하다.
- 연구소와 대학이 유럽차원의 연계망을 이루고 있다.
- 세계화에 대비한 마이크로 및 나노테크놀로지 영역의 우수한 석·박사양성 시스템을 그르노블에 갖추고 있다(INP de Grenoble).

세계시장에서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일의 시작과 집행에 있어서는 시간이 걸리고 테크닉차원에 서는 떨어지는 반면, 자율성이 강하고, 개념적이고 지적인 능력과 여러 주제를 동시에 취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독일이나 일본 엔지니어들에 비해 과제적응력이 우수하다는 평판을 받는다. 따라서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과제 집행부의 임무보다는 전략을 요구하는 복합적 영역의 과제나 대형 과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다 효율성을 보인다는 것이 국제적인 평판이다.

1. 프랑스 이공계 대학의 재조직 현황

위와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하여 프랑스는 향후 10년 간 자국의 이공계 교육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향후 전략으로 수학, 물리, 바이오 등 전통적으로 강한 기초과학 영역을 더욱 강화하고, 교육의 개방과 세계화를 위한 교육과정의 재조직을 추구하며, 모든 교육주체와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연계 아래 교육의 질과 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세계적인 교육연계망을 창설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프랑스 정부는 1999년 파리 소재의 우수한 이공계 대학들을 연계한 파리테크(ParisTech)를 발족하였다. 파리테크의 발족은 오늘날의 세계화된 시대에서는 프랑스식의 전공 중심의 소규모 단과대학체제는 그 질적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종합대학체제의 다른 영미권 대학에 비해 규모나 재정면에서 상대적으로 열세를 보일 뿐 아니라 대외적인 가시성이 부족하여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데 있어서도 불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

파리 소재의 우수한 단과대학들을 연계하여 향후 미국의 하버드나 스탠포드 또는 MIT에 버금가는 유럽 이공계 대학으로 성장시킨다는 원대한 목적이 배후에 깔려 있다.

2. 프랑스 이공계 대학의 국제화 전략

프랑스는 자국의 정치·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향후 자국 엔지니어 스쿨의 개방과 국제화를 통하여 세계의 첨단 기술 및 경제시장을 석권하고자 하는 큰 야심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대부터 프랑스는 자국 엔지니어 스쿨의 국제화와 세계무대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자국 이공계 대학의 질적인 우수성을 강화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이공계 대학으로 부상하기 위하여 외국의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의 영입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주요 타깃 대륙을 아시아와 남미, 아프리카로 하고 이미 중국, 베트남, 브라질, 멕시코, 페루, 남태평양 연안 도서국, 케백 등과 긴밀한 교류협정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교류프로그램을 성공리에 실천하고 있다.

현재 프랑스는 독일(1977), 중국(2003), 베트남(2004)과 기술교육 관련 정부 간 협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대학총장협의회인 CPU, 엔지니어 대학장협의회인 CDEFI 등을 통해서 케백(1996), 이탈리아(1998), 오스트리아(2002), 남미 제국들과 교류협정을 맺고 있다. 나머지는 모두 여러 가지 연계망을 통하여 대학 간 bilatéraux 협약형태로 체결하고 있다.

2003년 프랑스 엔지니어 학교의 외국인 학생 비율은 아프리카와 유럽국이 각각 41%, 32%로 가장 많고 아시아계와 라틴아메리카, 미국이 각각 9.5%, 8%, 3%를 차지한다. 프랑스 이공계 대학의 국제화 전략은 학생의 특성과 요구 및 필요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행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파트너 국가 정부나 대학의 요청과 주문에 따라 그들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자질을 갖춘 엔지니어로 양성하는 단기교육 프로그램, 타국 대학들과의 긴밀한 교육과정의 접목으로 이중학위 취득을 목표로 하는 장기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3. 프랑스의 중국 대학과의 학술교류 현황과 미래 전략

프랑스의 중국 대학들과의 학술교류 현황을 가장 역동적인 선두주자인 파리테크의 협정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4년 10월 11일 상하이 동제대학에 최초의 불·중 합작, 엔지니어 양성센터 건립을 위한 첫 주춧돌을 놓았다. 13,000m²의 불·중 엔지니어 양성센터는 2000년부터 있었던 파리테크와 동제(東濟)대학 간의 긴밀한 교류 결과이다. 양국 엔지니어 대학은 MBA와 4개 전공 영역에서 석사학위를 공동으로 지도해왔다. 이러한 불·중 협력을 통하여 지금까지 500여 명의 중국 학생들에게 엔지니어 석사학위를 수여하였다.

불·중 학술교류는 90년대 말 이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의 증대는 다양한 문화축을 중심으로 한 세계화를 구현하고자 하는 양국의 정책적 의도에 기인한다. 따라서 양국의 학생교류는 앞으로도 대폭 증가될 전망이다. 현재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다음과 같다.

- L'IFCIM, Institut Franco-Chinois d'Ingénierie et de Management, á Shanghai, (상해 불·중 엔지니어 및 매니지먼트 교육 연구소).
- Le programme "50 ingénieurs chinois á Paris" (중국 대학 간 연계프로그램, "중국 엔지니어

어 50명을 파리로”).

- Le Centre franco-chinois de l’université de Tongji(동제대학 부설 불·중 연구소).
- Un ensemble de Masters of Science organisés conjointement(불·중 협약 의거 협력 체결 대학과의 이중 석사학위제).

파리테크의 불·중 학술교류 4개년 계획(2004~2007년)의 3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 프로그램 수혜대상을 프랑스 및 중국의 학생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체 중견간부들에게로 확장하며, 교류 영역을 발전가능성이 높은 많은 다른 전공 영역과 과학기술 매니지먼트 영역으로 교류 범위를 확장한다.
- 중국이 21세기에 발전시키고자 하는 과학기술 영역에서의 연구협력을 우선 목표로 한다.
- 프로그램 안에서의 산학협력을 강화한다.

위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파리테크는 2004~2007년의 실천목표로 다음과 같은 2대 방침을 세우고 있다.

- 프로그램 “중국 엔지니어 50명을 파리로”와 이중 석사학위제도 안에서 최우수 중국학생의 선발과 유치를 계속한다.
- 중국 여러 대학 및 프랑스 기업, 파리테크 간 교류를 강화하되, 파리테크에 개설된 이중 석사 학위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일관성이 있으며 전공 중심으로 특화된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킨다.

이러한 파리테크의 교류협력 프로그램 외에도 불·중 대학 간 bilatéraux 협약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 낭트대학과 중국 남부기술대학교(SCUT) 간 성사된 협약(2004년 6월)으로 중국 관동(關東)에 불·중 합작 엔지니어 양성센터가 개설되었다. 이러한 협약에 따라 2005년 6월, 폴리테크 낭트(Polytech’Nantes) 연계망의 이공계 학생 10여 명이 중국 SCUT대학으로 떠났으며 반면 낭트대학에서는 SCUT 대학 교수 2인을 초빙하며 텔레커뮤니케이션 전공 영역에서 최초의 공동 석사학위를 개설하였다.

이와 같은 파리테크 및 폴리테크 낭트의 선두주자적인 국제화와 세계 진출에 자극을 받아 다른 이공계 대학들도 전국 이공계 대학총장회인 CDEFI를 중심으로 조직을 강화하여 현재 활발한 국제교류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모델은 앞서 언급한 파리테크의 그것과 유사하다.

VII. 프랑스 고등교육개혁의 시사점

우리나라도 앞으로 국내 대학들의 통폐합 등을 통한 재구조화 사업에 도약적인 발판을 마련하고 국내 대학이 표방하는 대학개방 및 교육과정의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천적 기제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국내의 필요성을 인식, 우리 정부 및 한국대학교육협의


회가 2004년 12월 한·불 학술교류 일반협정을 체결한 바 있다.

지난 해 필자가 프랑스 교육원장으로 부임해 보니 아직 한-불 간에 두드러진 교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간간이 대학 간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정도로 보인다. 이제는 이러한 협정을 발판으로 하여 앞장에서 본 것과 같은 유럽 각국 대학들의 적극적인 대외 개방정책에 국제 파트너로 동승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다.

그 실천기제로 한국 고등교육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연계함과 동시에 한국 유학생 및 연구원들을 안내·지도할 수 있는 한·불 대학 간의 학술교류 및 협력을 효과적으로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천기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칭 “한-불 대학 연계 및 학술교류 지원단(Mission Interuniversitaire de Coordination des Echanges France-Coree : MICEFCO)”과 같은 조직을 통해 한국 사회, 문화, 경제모델의 국제적 홍보와 보급, 한-불 및 한-유럽 간 학술교류 및 연구협력의 강화, 한-불 고급 전문인적 자원의 양성, 한-불 고급 전문인력 연계망의 구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학술교류 등의 미션 수립을 통해 장래 중국, EU, 미국을 중심으로 재편이 예상되는 과학·기술 분야의 경쟁구도 속에서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발전전략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일은 정부가 나서서 해 주기보다는 대학이 스스로 비전과 전략을 마련하여 공유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본다.

학문의 세계에서 독자적인 생존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는 권역별 네트워크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정보의 생산과 유통경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유럽이 아시아로 눈을 돌리고 있는 이때 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쌓아온 학문과 지식의 축적도를 우리가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우리나라 대학들이 당면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로 자리매김 되어야 할 것이며,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지름길은 인적 교류의 확대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일 것이다. 

김차진

경북대학교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영남대학교에서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현재 고려대학교에서 박사과정 중에 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으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장으로 재직 중에 있다.